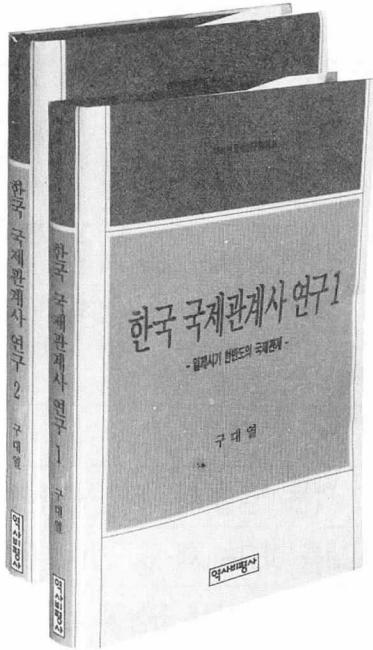


비어 있는 한국외교사의 실증연구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펴낸 구대열 교수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국제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구대열 교수(50,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가 최근 펴낸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2-일제시대 한반도의 국제관계-》(역사비평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엄밀하게 말해 이 시기 한국의 국제관계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공식행위자가 국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외교사는 40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서 공백기간을 거쳐 1945년 해방, 1948년 독립국가 수립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문서에 근거한 문헌연구

그러나 구교수는 일제시기에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일본인과는 전혀 다른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닌 한국인은 엄존하고 있었음을 주목하고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여전히 존재했음을 강조한다. 한국 외교사란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외행위에 대한 기록이어야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이 외부세력의 영향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해방과 독립이라는 ‘한국문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열강들의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과 대처방안을 살피는 일은 곧 이 시기 한국외교사를 밝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일제시기 한국문제에 가장 지속적이며 결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영국과 미국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밝혀내고 있는 구교수의 연구성과는 1,2부로 나뉘어 두 권으로 묶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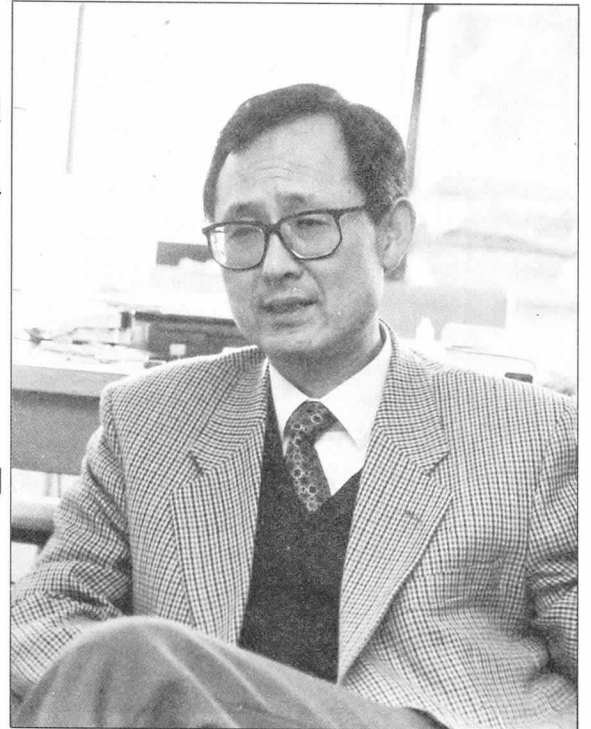
1권에서는 <이론적 문제들> <1910년대의 문제들> <3.1운동과 열강> <1920년대 한반도의 국제관계> <1930년대까지 국제관계> 등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보호조약부터 1930년대까지의 국제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1940년대의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핀 2권에서는 <해방과 분단에 대한 기존 해석상의 문제점> <미국의 한국정책> <중국의 한국정책> <영국의 한국정책> <소련과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재평가>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열강들의 위상과 입장, 정책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구교수가 이 책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 중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합방과 해방 두 시기의 국제정치구조는 동아시아 문제가 처리되면서 동시에 한국문제가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국 이후 구한말을 거치면서 열강들이 지니게 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후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띠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본다면 분단의 단초가 되는 ‘신탁통치’ 또한 종전의 지배적인 해석인 냉전구조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한국인의 독립능력을 믿을 수 없었던 열강들의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세계사적으로 이미 축적된 식민통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이 갈등과 협조를 거쳐 합의한 식민지 처리방식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한편,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구교수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 국민당의 입장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임시정부를 장악하고 광복군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종전 후에는 일본 대신 한국을 장악하고자 했고, 서구 열강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제공한 한국정보의 프리즘

일제시기 한국문제에 가장 지속적이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영국과 미국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밝혀낸 구교수의 연구성과는 한국외교사의 공백기를 메운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구대열 교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구교수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87년 여름방학 때 영국런던의 공공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이 시기 외교문서들을 접하면서부터다. 이 문서들만으로 개별논문은 써 나가던 구교수는 92년부터 1년 가량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 있으면서 미국립문서보관소의 외교문서들을 수집했고, 두 나라 문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외교문서를 근거로 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고 더욱이 일제시기 국제관계의 경우 1차적인 자료에 대한 정리조차 안된 실정이어서 이 연구는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학자는 골동품 도굴꾼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구교수의 연구태도도 이 책에 대한 믿음을 더한다.

기존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극복

하루에 세 권 이상 책을 볼 수 없고 펜이나 노트를 소지할 수도 없었던 까다로운 열람조건과 해외자료를 여유있게 볼 만한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이 실질적인 어려움이었다고 밝히는 구교수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국 외교사의 공백기를 메운다는 학자로서의 의욕 외에도 우리

학계의 일제시기 연구성과가 갖는 한계와 주관성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일제시기에 대한 연구들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기보다는 인상적인 데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과 연구태도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나와 있는 논문이나 저술들은 대체로 태평양전쟁이나 해방을 기점으로 국제관계를 살피는 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합방부터 해방에 이르는 전 시기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도라고 스스로의 학문적 입장을 밝히는 구교수는 학계에 받을 던기 전 한국일보사에서 5년간 기자생활을 하기도 했다. 실증성을 중시한 태도나 학술서의 고답적인 문체를 탈피, 쉽게 읽히는 그의 문장은 어쩌면 이 시절의 경험에 바탕한 것 아닐까.

영국 유학시절, ‘전영(全英)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수준급의 바둑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개항부터 합방시기까지의 국제관계도 살피, 비어 있는 한국외교사를 완성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박남정 기자